

나의 ICID 국제집행위원회의 참관기

남 우

(nhamwoo@hanmail.net)

농어촌개발처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가 주관하는 ICID 제61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6차 아시아지역회의가 201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다. ICID는 관개·배수, 홍수조절 및 하천개수에 관한 과학기술 개발의 장려를 위해 1950년에 설립한 비정부 과학기술단체로 UN경제사회이사회, FAO, UNESCO 등의 자문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7개 회원국과 UNDP, IBRD 등 20여 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물 관련 UN으로 인정받고 있다.

‘소규모 농지에서의 관개·배수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55개국에서 5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우리공사 직원 8명을 비롯하여 공무원, 대학교수, 각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2014년 서울에서 열리게 될 ICID 서울총회의 개최 및 참가 안내, 준비상황 등에 관한 보고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각 분과위원회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각종 기술정보를 교환하였다.

본 참관기는 ICID 총회의 각 분과위원회 가운데 직접 참여했던 분과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Registration

■ 제6차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ASRWG)

본 회의는 충남대학교 김태철 교수의 주재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Agenda에서 거론된 사안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북한을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생각되었다.

아시아 지역분과위원회는 국제물관리기구(IWMI), 국제식량기구(FAO), UN-WATER, 세계기상기구(WMO) 등과 각종 현안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제물관리기구와 ICID는 '특정기간에 있어서 아시아지역 관개의 경향'이라는 테마를 공동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ICID와 IWMI, FAO는 공동으로 '아시아 관개의 미래'라는 특별 분과를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는 '아시아의 물과 식량의 미래모습', '아시아 지역의 가난과 물 부족', '미래를 위한 관개관리 개선과 혁신적인 옵션' 등의 세부주제로 진행되었다.

아시아지역 기후변화와 관리 T/F는 일본의 Ota 박사의 주재 하에 세계온난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과 국제적 기여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Ota 박사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시아 각국이 전 지구적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초기대응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시아지역 기후변화관리 T/F의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각국의 공식적인 전략과 정책의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회의에서는 2013년 터키와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ICID 총회의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서울총회의 준비사항은 KCID 전임이사인 조진훈 박사에 의해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표단이 준비한 총회 안내 브로셔와 우리공사의 영문 홍보책자를 각국 대표단에게 배포하고 설명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많은 국가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 지속가능연안개발 기술분과(WD-SDTA) 회의

본 회의는 분과위원장인 박상현 박사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주요 Agenda는 지속가능연안개발분과 활동기간의 기간연장(6년)이라는 주제와 함께 2012년 말까지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핸드북을 발간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이었다. 핸드북을 발간함에 있어 모든 기술자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내용을 알차게 하자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었으나 가능한 쉽게 기술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각 장별로 저자를 정함에 있어 간척부분은 한국 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핸드북 발간에도 회장이 직접 저자로 참여하기로 하여 그 의의를 높였다.

■ 시설물현대화분과(WG-MIS) 세미나

러시아를 비롯한 6개국에서 관개에 대한 각국의



Conference

경험과 시공사례를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항은 일본에서 발표한 물 사용자의 요구와 아이치 수로의 진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발표는 아이치 수로 제2공구 계획의 역사와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나라 4대강 개발과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이치 수로공사는 Chita반도의 관개와 생공업용수 및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본 최초의 다목적용수개발 프로젝트로 한 농민의 제안에 의해서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Chita반도의 지형상 물부족은 농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다목적 용수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물 문제의 해결과 함께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들은 생공업 용수의 증가로 인해 수로용량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의 홍수 유입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행된 아이치 2단계 프로젝트는 다음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아이치 2단계 프로젝트는 증가된 도시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로의 형상을 사다리꼴에서 직사각형으로 변경하고 수로 중간에 가로막을 설치함으로써 농업용수와 도시용수를 구분하여 용수공급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였다. 향상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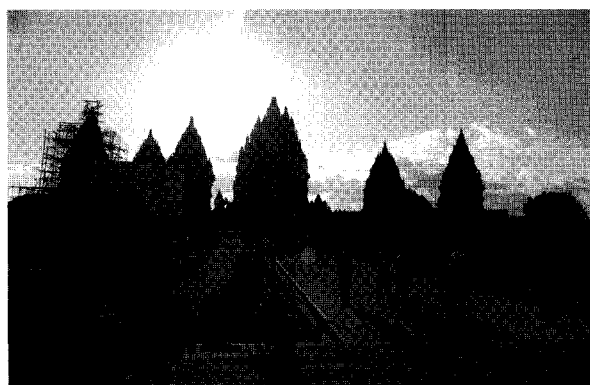
물관리를 위해 수로의 끝과 중간에 조절용 저수지 설치하고, 농민이 쉽게 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으로 수로를 재조직하였으며, 원격 측정과 제어를 위한 원격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또한 아이치 수로 개발공사를 통하여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소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어떠한 계획도 결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수요자에 의해 고안되고 진행된 아이치 수로공사 계획은 현지 주민과 단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까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준 것은 물론, 아직까지 커다란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계획의 초기에서부터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기술분과 위원회에서는 충남대 노재경 교수와 화안사업단 유영진 차장의 한국 사례 발표가 있었다. 유차장은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이란 주제로 화성호의 간척사업 추진 현황과 수질보전 사례를 발표하였다. 유차장은 “수질 보전대책의 성공요인은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자를 참여시켜



Malioboro



Prambanan Temple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오염물질의 불법투기를 방지하였으며, 공공매체인 신문을 통하여 화성호 수질개선 대책 및 조치사항을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계몽을 실시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간척기술과 환경보전의 기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란 초청 만찬

이란은 2011년에 있을 ICID 총회의 준비상태 홍보를 겸한 만찬을 개최하였다. 각국 대표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2014년 서울총회 개최자에 대한 특별대우라는 차원에서 한국대표들에게는 별도의 초청장 발송 없이 전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해왔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란 대표는 만찬사를 통하여 ICID의 발전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란 총회가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각국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만찬에 앞서 이란은 현재의 준비사항을 동영상으로



Stupa

소개하였다.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의 이란을 알리고 현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은 매우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또한 2014년 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시금석이란 생각과 함께 성공적인 서울총회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환영만찬과 송별만찬

국제회의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만찬이라고 한다. 환영만찬은 족자카르타 특별 주지사가 주관하여 술탄왕궁에서 진행되었고 송별만찬은 힌두교 사원인 프롬바난 사원내 공연장에서 있었는데 족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문화의 발상지를 증명하려는 듯이 전통춤과 노래 연극을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각종 산업과 교역이 발달하여 불교, 힌두교, 이슬람 왕조를 거쳐 오면서 많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보르부르, 프람바난 사원 등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주지사는 하명꾸 부오노 10세로 족자카르타 술탄(왕)으로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며 인도네시아의 정신적 지도자로 주민과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한다.

■ 회의를 마치며

인도네시아가 회의 준비에 기울인 노력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친절했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손님맛이를 하였다. 첫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우리대표단에게 버스를 제공하여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에 불편이 없게 해주었을 뿐더러, 호텔로비에서 회의장까지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임에도 셔틀차량을 배치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환대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처음으로 참석한 국제회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체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라는 작은 시야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구촌이라는 큰 테두리에서의 폭넓은 시야를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덤으로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언어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통한 교류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공사나 각 개인이 보유한 기술 또한 이미 선진기술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공사와 각 개인들 역시 국제적으로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바람이 있다면 젊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국제회의를 관할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기를 소망한다. 대만의 경우 약 30여명을 파견하여 각종 위원회와 세미나를 주관하는 등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 공무원은 물론 개인회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ICID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4년 서울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서울 총회를 단지 행사를 위한 준비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제부터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서울총회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KCID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같이 참여하여 애정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 대표단 일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국제적 리더로 성장해준 대한민국에게 큰 감사를 표한다.